

예술치료사 발달평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김 동 민

(전주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

김 영 신**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교수)

본 연구에서는 예술치료사의 고유한 전문성 발달을 측정할 수 있는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the Creative Arts Therapist Developmental Assessment Scales: CAT-DAS)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연구 1에서는 상담자 발달에 관한 문헌 및 기존 척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66개의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 예비문항을 제작하고 예술치료사 24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요인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치료중재기술’, ‘역전이 관리’, ‘치료관계’, ‘윤리적 대처’, ‘협업’의 총 5요인, 21문항이 도출되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요인구조가 다른 예술치료사의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399명의 예술치료사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1에서 도출된 하위요인들과 문항들이 예술치료사의 발달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 및 변별, 준거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치료사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본 척도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제어: 예술치료사, 발달,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 타당화

예술 매체와 예술적 경험을 치료적으로 사용하여 인간의 정서적, 신체적, 관계적 문제를 다루는 예술치료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예술치료사¹⁾의 전문성에 대한 학문적, 교육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치료사의 전문적 자질과 능력은 예술 매체와 더불어 클라이언트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요인이므로 예술치료사의 전문성과 그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발달 과정과 마찬가지로 예술치료사의 전문성 수준도 일련의 과정을 통해 향상되며, 예술치료사의 발달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의 경험도 달라진다. 따라서 예술치료사의 발달에 대한 이해는 예술치료사 교육과 훈련에 있어 훈련가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3050017)

** 교신저자 ysk@sookmyung.ac.kr

와 훈련생 모두에게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

예술치료학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로 인해 이제까지 예술치료사 발달에 대한 이해는 예술치료사와 그 전문성이 가장 유사한 상담자의 발달 모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Longanbill, Hardy와 Delworth(1982)는 상담자의 발달을 유능성(competence), 정서적 알아차림(emotional awareness), 개인적 동기(personal motivation), 그리고 전문가 윤리(professional ethics)와 같은 4개 요소로 분류하였다. Stoltenberg와 Delworth(1987)는 통합적 발달 모형(Integrated Development Model: IDM)을 제시하였으며, K. H. Kim(1992)은 상담대화기술, 알아차림, 진단 및 처치, 전문성, 평가 등의 영역으로 상담자 훈련 내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Jeon(2016)은 상담자의 발달을 인성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그리고 전문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Shim과 Lee(1998)에 따르면, 상담자의 발달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훈련가는 수련생의 발달 수준을 명확히 평가하고 적절한 교육환경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신의 발달 수준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담자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별함으로써 시기에 따라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전문성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개인 특성적인 어려움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도 깊게 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의 경험을 거시적 안목과 과정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됨으로써 임상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Sohn, Yoo와 Shim(2003), J. S. Kim(2005), 그리고 Go와 Park(2014) 등은 상담자의 자기 성찰 경험이 상담자의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상담 이론과 기법을 통합하고 지속하는 전문성 발달의 중요한 기제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상담자의 자기 성찰은 역전이 관리능력과 직결된다.

이 밖에도 상담자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상담자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역전이 관리 능력이 높아지고(Shin & Kim, 2001), 인지, 정서 능력이 보다 잘 분화되며(Kang, 2008; Lim & Kim, 2008), 내담자와의 작업동맹이 더욱 견고해지고(Jung & Kim, 2011), 성찰 능력과 마음 챙김의 수준이 높아진다(J. H. Kim & Ahn, 2013)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몇몇 선행연구들이 상담자의 발달 수준이 상담 경험과 슈퍼비전 경험과 경력에 따라 증가한다고 보고한 반면(Jo & Kwon, 2011; Shim & Lee, 1998), 또 다른 연구들은 상담자의 발달 수준이나 상담자가 스스로 지각하는 발달 수준이 상담자의 경력과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하기도 하였는데(Baek & Yoo, 2012), 이러한 상반된 결과들은 상담자의 발달이 보다 다각적으로 평가되고 예측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Shim과 Lee(1998)는 상담자의 발달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들이 제작한 한국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Korean Counselor Level Questionnaire: KCLQ)는 현재 상담 영역 뿐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예술치료사의 전문성 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측

정 도구이기도 하다. KCLQ는 총 50문항으로 구성된 4점 리커트(1 =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4 = 상당히 일치한다)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그 하위유형은 상담 대화기술(10문항), 사례이해(11문항), 알아차리기(9문항), 상담계획(11문항), 인간적/윤리적 태도(9문항)이다. 하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상담대화기술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담자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고, 둘째, 사례이해는 내담자의 문제와 치료 이유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셋째, 알아차리기는 내담자의 말의 의도와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넷째, 상담계획은 적절한 치료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윤리적 태도는 내담자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하위유형들을 고려해 볼 때, 상담자 발달에 있어 상담 직무에 필수적인 이론, 기법, 과정 및 방법과 같은 지식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가진 인간적, 윤리적 태도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최근 국내의 예술치료사 전문성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들로는 Kang(2008)의 ‘미술치료 실행가의 발달 수준 및 대인관계 성향과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D. M. Kim(2015)의 ‘슈퍼비전 관계가 예술치료 슈퍼바이저의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자기신념의 매개와 슈퍼비전 만족도의 조절 효과’, K. S. Lee(2015)의 ‘음악치료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피드백 수용도, 슈퍼바이저 스타일, 슈퍼바이저 발달 수준, 슈퍼비전 작업동맹 간의 구조분석’ 등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에 사용되었던 측정도구들은 거의 모두 상담/심리치료 전문가들의 전문성 관련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들로, 예술치료사의 전문성 발달을 구성하는 고유한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예술치료사의 전문성은 상담/심리치료 이론과 언어적 중재기술뿐만 아니라 예술이론과 예술적 중재기술의 습득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예술치료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상담/심리치료 전문가를 위한 것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내용을 요한다(D. M. Kim, 2009).

예술치료사 전문성 측정을 위해 상담영역에서 현존하는 도구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단어만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한계는 결과적으로 예술치료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술치료사의 고유한 전문성 발달을 측정할 수 있는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the Creative Arts Therapist Developmental Assessment Scales: CAT-DAS)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상담자 발달에 관한 문헌 및 기존 척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의 예비문항을 제작하고 예술치료사 24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요인구조가 다른 예술치료사의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399명의 예술치료사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와 심리적 소진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1과 연구2에서

탐구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는 예술치료사의 고유한 전문성의 잠재적 요소들을 포괄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질 것인가?
2. 예술치료사 발달평가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3. 예술치료사 발달평가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연구 1.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 1에서는 상담자 발달에 관한 문헌 및 기존 척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의 66개의 예비문항을 제작하였다. 이후 예술치료사 24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방법

선행연구 고찰 및 구인개념 정의

본 연구에서는 신뢰롭고 타당한 예술치료사 발달수준평가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발달 수준에 관한 개념을 검토하였는데, 예술치료사의 전문성과 발달 뿐만 아니라 예술치료사와 가장 유사한 내용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담가/심리치료사의 전문성에 관한 선행연구 및 문헌들도 충분히 검토하였다. 또한, 이제까지 예술치료사 발달 수준을 평가할 때 사용해 온 기존의 상담가/심리치료사들의 전문성 관련 척도들과 이를 구성하는 문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때, 기존 척도들에 대한 제고를 넘어 상담가/심리치료사와 명확히 구별되는 예술치료사의 고유한 전문성을 구성하는 개념들도 제고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술치료사의 전문성 발달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수립되었다. 이 연구에서 수립된 예술치료사의 전문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예술치료사가 함양하고 있는 예술치료 관련 학술지식 및 중재기술, 예술성, 철학, 가치관, 태도, 성격 등이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능력’이었으며, 조작적 정의는 ‘예술치료사의 교육수준, 언어중재기술, 예술치료중재기술,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치료계획수립, 관계적/윤리적인 태도 등이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능력’이었다.

검사 구조 및 형식 결정

현존하는 검사의 질적 수준이 의심되는 경우(검사 문항의 타당성, 번역의 충실성, 측정하

적 타당성 등), 기존 검사의 실시 대상, 검사 길이 등이 달라지는 경우 기존 검사의 문항 수정 및 재타당화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예술치료사 전문성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사용되었던 측정도구들은 거의 상담/심리치료 전문가들의 전문성 관련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들로 각 척도의 문항들은 상담가의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척도들은 예술매체와 예술적 경험을 가장 중요한 치료의 매개체로 사용하는 예술치료사의 전문성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상담자의 발달 수준을 측정할 만한 기존 검사지를 확인하고, 이를 예술치료사의 고유한 경험 측정에 사용하기 위해 문항 수정 및 재타당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예술치료사 발달평가 척도 개발에 기반이 되는 기존 검사지는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Korean Counselor Level Questionnaire: KCLQ)(Shim & Lee, 1998)와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 질문지(Counter-transference Factors Inventory: CFI)(Chang, 1999)이다.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는 국외의 상담모형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한국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한국형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이다. KCLQ는 상담대화기술(10문항), 사례이해(11문항), 알아차리기(9문항), 상담계획(11문항), 인간적/윤리적 태도(9문항)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역전이 관리능력 질문지(Countertransference Factors Inventory: CFI)는 본래 Van Wagoner 등(1991)이 개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Chang(1999)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CFI는 자기통찰(11문항), 공감능력(11문항), 자기통합(11문항), 불안관리(8문항), 개념화기술(9문항)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악치료 전공생 및 전문가의 역전이 관리능력이 높다고 해석한다.

문항제작

본 연구에서는 위에 언급된 기존 검사지가 상담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술치료사의 고유한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검사지의 문항을 수정, 첨가, 삭제하는 작업을 통해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먼저, 연구자들은 위의 척도의 구성요인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술치료사들에게 적용 가능한 문항들로 수정, 삭제, 추가하여 86문항의 1차 예비척도를 제작하였다. 이후, 예술치료 전공 교수 5인(음악치료 전공 교수 3인, 미술치료 전공 교수 2인)에게 제시된 문항이 예술치료사들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수정해야 할 사항들과 상담 상황에 치중되어 예술치료적 경험에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평가되는 문항들에 대한 삭제 여부와 예술매체를 활용하는 예술치료사의 고유한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추가 문항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66문항의 2차 예비척도가 제작되었다. 이후, 국문학 교수 1인에게 문항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자문을 구한 뒤 이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3차 예비척도를 제작하였다. 내용 타당도 검정을 위하여 관련분야 교수 5인의 내용 타당도 검정을 받았으며 내용 타당도 지수(CVI: Content Validity Index)는 .982로 산출되었다.

연구대상 및 절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설문은 전국 예술치료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예술치료사(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무용동작치료사 등)와 현재 예술치료(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등) 학과 학부나 대학원에서 인턴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의뢰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무 응답한 부분이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총 240명의 자료가 수거되었다. 이들의 성별은 여자 231명(96.3%), 남자 9명(3.8%)이었으며, 연령은 20대 88명(36.7%), 30대(102명, 42.5%), 40대(36명, 15.0%), 50대 이상 14명(5.8%)이었다. 참여자의 예술치료 전문분야를 살펴보면, 음악치료사가 189명(78.7%)로 가장 많았고 미술치료사 30명(12.6%), 무용동작치료사 15명(6.3%)이었다. 기타에 속하는 전문분야는 연극치료, 문학치료 등으로 보고되었다. 본 조사 참여자의 구체적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Participant Demographics in Study 1

		<i>n</i>	Percentage
Gender	Male	9	3.8
	Female	231	96.3
Age (years)	20s	88	36.7
	30s	102	42.5
	40s	36	15.0
	50s or older	14	5.8
Education (degree)	Bachelor's	75	31.3
	Master's	154	64.2
	Doctoral	11	4.6
Years of work	Internship	37	15.4
	Less than 1 year after being licensed	46	19.2
	1~2 years	59	24.6
	3~4 years	36	15.0
	5~6 years	17	7.1
	7~9 years	21	8.8
	10 years or more	24	10.0
Type of employment	Full time	63	26.1
	Part time	177	73.9
Area of specialty	Music therapy	189	78.7
	Art therapy	30	12.6
	Dance/movement therapy	15	6.3
	Etc	6	2.5

Note. *N* = 399

본 연구를 위하여 기관 연구 심의위원회(IRB)의 연구 승인을 받은 후 2016년 6월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지필과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윤리규정에 따라 연구의 목적과 의의, 비밀보장, 연구결과 처리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설문지에는 인구통계학적 자료와 예술치료사 발달평가 예비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설문

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설문 실시 이후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답례물이 지급되었다.

자료분석

척도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Varimax 회전 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이 되는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이 .50 이상이 되는 문항을 선택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문항수와 데이터 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KMO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문항들 사이의 상관계수 행렬의 단위행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추출된 66개의 예비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예술치료사 발달평가 척도는 5요인 21문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출된 요인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산출하여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5%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분석을 하기 위하여 KMO 지수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적절성 측정치 KMO 지수는 .925로 .80 이상으로 나타나 데이터의 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이 유의하여($p < .001$) 문항들의 상관계수 행렬이 단위행렬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본 자료는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21개 문항이 5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5개 요인이 전체 문항 분산의 69.66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A요인 .606~.792, B요인 .677~.813, C요인 .704~.725, D요인 .694~.805, E요인 .558~.824의 요인 부하량을 보였으며(Table 2 참조),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은 .508~.913으로 보고되었다(Table 3 참조).

Table 2

Factor Loadings and Communalities Based 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Study 1 (A Intervention Techniques, B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C Therapeutic Relationship, D Ethical Strategies, E Collaboration)

	A	B	C	D	E
42 나는 내담자의 언어적/예술적 표현에서 모호한 부분을 명료화한다.	.792				
16 나는 적절한 시기에 증재한다.	.786				
40 나는 치료 상황에서의 문제를 적절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한다.	.759				
7 나는 내담자의 필요와 핵심문제를 파악한다.	.698				
45 나는 중요한 예술치료기법들을 적절히 사용한다.	.676				
12 나는 내담자의 예술적 표현에서 중요한 이슈를 알아차린다.	.610				
41 나는 내담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인식한다.	.606				
56 나는 내 성격을 형성시킨 배경요인들을 이해하고 있다.		.813			
57 나는 나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시킨 배경요인을 이해하고 있다.		.772			
55 나는 내담자로 인한 나의 감정을 자각한다.		.692			
53 나는 나 자신의 감정을 깊이 있게 숙고한다.		.677			
21 나는 내담자에게 진실하고 솔직하다.			.725		
29 나는 내담자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공감한다.			.715		
28 나와 내담자의 관계는 상호적이다.			.714		
25 나와 내담자와의 소통이 자연스럽다.			.704		
65 나는 전문가로서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805	
66 나는 직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알아차리고 이에 적절히 대응한다.				.789	
24 나는 내 전문성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인지한다.				.694	
34 나는 치료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슈퍼바이저나 동료에게 자문을 구한다.					.824
9 나는 필요하다면 타전문가와 협업한다.					.724
64 나는 동료들이나 슈퍼바이저의 조언을 경청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558
Eigenvalues	4.340	2.930	2.918	2.442	2.000
% of Variance	20.665	13.951	13.896	11.629	9.525
Cumulative %	20.665	34.616	48.511	60.141	69.666
KMO = .925, Bartlett's $\chi^2 = 2913.278$, $p < .001$					

Note. CAT-DAS는 국내 예술치료를 위한 국문판 척도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고려하여 국문으로 문항을 기술하였음.

구체적으로 각 요인에 속한 문항들을 살펴본 결과, A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치료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예술적 경험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룰 수 있는 치료 기술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치료 중재기술”로 명명하였다. “치료 중재기술” 요인은 ‘나는 내담자의 언어적/예술적 표현에서 모호한 부분을 명료화한다’, ‘나는 적절한 시기에 중재한다’, ‘나는 치료 상황에서의 문제를 적절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한다’, ‘나는 내담자의 필요와 핵심문제를 파악한다’, ‘나는 중요한 예술치료기법들을 적절히 사용한다’, ‘나는 내담자의 예술적 표현에서 중요한 이슈를 알아차린다’, ‘나는 내담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인식한다’의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B요인은 치료사의 자기성찰과 관련되며 치료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사의 개인적 이슈나 배경을 포함한다. 이 요인에서는 치료관계와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료사의 개인적, 상호주관적 역전이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주요하게 나타나 이를 “역전이 관리”로 명명하였다. “역전이 관리” 요인은 ‘나는 내 성격을 형성시킨 배경요인들을 이해하고 있다’, ‘나는 나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시킨 배경요인을 이해하고 있다’, ‘나는 내담자로 인한 나의 감정을 자각한다’, ‘나는 나 자신의 감정을 깊이 있게 숙고한다’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C요인은 치료사와 내담자와의 소통과 공감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치료 관계”로 명명하였다. “치료 관계” 요인은 ‘나는 내담자에게 진실하고 솔직하다’, ‘나는 내담자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공감한다’, ‘나와 내담자의 관계는 상호적이다’, ‘나와 내담자와의 소통이 자연스럽다’의 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D요인은 예술치료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태도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윤리적 대처”로 명명하였다. “윤리적 대처” 요인은 ‘나는 전문가로서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나는 직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알아차리고 이에 적절히 대응한다’, ‘나는 내 전문성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인지한다’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E요인은 어려운 치료 상황에서 동료나 슈퍼바이저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다른 전문인들과 팀으로 작업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협업”으로 명명하였다. “협업” 요인은 ‘나는 치료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슈퍼바이저나 동료에게 자문을 구한다’, ‘나는 필요하다면 타전문가와 협업한다’, ‘나는 동료들이나 슈퍼바이저의 조언을 경청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의 3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Table 3

Inter-Correlations of CAT-DAS in Study 1

	Total	Intervention techniques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Therapeutic relationship	Ethical strategies	Collaboration
Total	1.0					
Intervention techniques	.913***	1.0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784***	.621***	1.0			
Therapeutic relationship	.836***	.717***	.508***	1.0		
Ethical strategies	.802***	.645***	.557***	.623***	1.0	
Collaboration	.784***	.623***	.552***	.622***	.601***	1.0

*** $p < .001$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α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93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치료 중재기술 .906, 역전이 관리 .845, 치료관계 .840, 윤리적 대처 .836, 협업 .741로 모든 하위요인들의 신뢰도 지수가 .70 이상으로 나타나(Nunnally, 1978) 본 척도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구의 정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이용하였다. 왜도의 절대값이 3, 첨도의 절대값이 7 이내인 경우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는데(I. H. Lee, 2014), 이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별 왜도와 첨도는 이러한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and Cronbach's α

	Min	Max	<i>M</i>	<i>SD</i>	Skewness	Kurtosis	Cronbach's α
Total	1.00	6.00	4.65	0.56	-.963	6.730	.936
Intervention techniques	1.00	6.00	4.34	0.65	-.326	2.610	.906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1.00	6.00	4.75	0.71	-.607	2.304	.845
Therapeutic relationship	1.00	6.00	4.73	0.65	-.821	3.382	.840
Ethical strategies	1.00	6.00	4.81	0.78	-.758	1.569	.836
Collaboration	1.00	6.00	4.94	0.75	-1.068	3.059	.741

연구 2.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척도의 요인구조가 다른 예술치료사 집단의 자료를 타당하게 설명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개발된 척도에 대하여 준거,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자 발달수준과 심리적 소진과의 상관을 검토하였다.

방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조사의 참여자들은 전국 예술치료 관련 기관에서 예술치료사(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무용동작치료사 등)로 활동하고 있는 치료 전문가들과 예술치료(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등) 학과 학부나 대학원의 인턴 과정 중에 있는 학생 39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성별은 여자 378명(94.7%), 남자 21명(5.3%)이었으며, 연령은 20대 191명(47.9%), 30대 146명(36.6%), 40대 50명(12.5%), 50대 이상이 12명(3.0%)이었다. 참여자의 예술치료 전문분야를 살펴보면, 음악치료 290명(72.7%), 미술치료 82명(20.6%), 무용동작치료 18명

(4.5%), 기타 9명(2.3%)이었다. 기타에는 연극치료, 문학치료 등이 포함되었다. 설문 참여자의 구체적 정보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Participant Demographics in Study 2

		<i>n</i>	Percentage
Gender	Male	21	5.3
	Female	378	94.7
Age (years)	20s	191	47.9
	30s	146	36.6
	40s	50	12.5
	50s or older	12	3.0
Education (degree)	Bachelor's	170	42.6
	Master's	210	55.7
	Doctoral	19	4.8
Years of work	Internship	139	34.9
	Less than 1 year after being licensed	17	4.3
	1~2 years	67	16.8
	3~4 years	52	13.1
	5~6 years	51	12.6
	7~9 years	34	8.5
Types of employment	10 years or more	39	9.8
	Full time	91	22.8
Area of specialty	Part time	308	77.2
	Music therapy	290	72.7
	Art therapy	82	20.6
	Dance/movement therapy	18	4.5
	Etc	9	2.3

Note. *N* = 399

본 연구를 위하여 기관 연구 심의위원회(IRB)의 연구 승인을 받은 후 2016년 6월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지필과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윤리규정에 따라 연구의 목적과 의의, 비밀보장, 연구결과 처리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설문지에는 인구통계학적 자료, 예술치료사 발달평가 21문항과 상담자 발달수준과 심리적 소진 척도가 포함되었으며,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설문실시 이후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답례물이 지급되었다.

측정도구

상담자 발달수준척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담자 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him, Lee(1998)가 개발한 한국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Korean Counselor Level Questionnaire: KCLQ)를 사용하였다. KCLQ는 총 50문항으로 구성된 4점 리커트(1 =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4 = 상당히 일치한다)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발달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KCLQ의 하위요인은 상담대화기술(10문항), 사례이해(11문항), 알아차리기(9문항), 상담계획(11문항), 인간적/윤리적 태도(9문항)로 구성되어있다.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1이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이다.

심리적 소진척도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심리적 소진 척도 (MBI: Maslach Burnout Inventory)를 Choi(200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MBI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0 = 전혀 없다, 6 = 매일),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MBI의 세 개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소모(9문항), 비인격화(5문항), 개인적 성취감 감소(7문항)이다. Maslach와 Jackson(1981)이 연구에서 제시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6이며, 정서적 소모 .90, 비인격화 .79, 성취감 결여 .71로 보고되었다.

자료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된 요인 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CFI, RMSEA, TLISMS 지수와 Q 통계량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타당도(변별, 준거)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본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5개 요인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요인에 걸쳐 집중타당도를 평가하는 AVE 값은 치료중재기술 .643, 역전이 관리 .557, 치료관계 .654, 윤리적 대처 .665, 협업 .524로 모든 요인이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CR값도 치료중재기술 .926, 역전이 관리 .832, 치료관계 .882, 윤리적 대처 .856, 협업 .765로 모든 요인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도구의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뢰도를 평가하는 Cronbach's α 는 치료중재기술 .910, 역전이 관리 .831, 치료관계 .844, 윤리적 대처 .688, 협업 .700으로 나타나 5개 요인 모두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6 참조).

Table 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mmary for Model Fit Indices for Study 2

	B	SE	β	t	AVE	CR	α
1.1	1.000		.760		.643	.926	.910
1.2	1.165	.074	.761	15.763			
1.3	1.206	.070	.822	17.240			
1.4	1.147	.070	.789	16.444			
1.5	1.182	.073	.778	16.170			
1.6	1.049	.071	.717	14.717			
1.7	1.081	.069	.754	15.588			
2.1	1.000		.764		.557	.832	.831
2.2	.875	.062	.732	14.019			
2.3	.940	.065	.756	14.476			
2.4	.908	.066	.722	13.818			
3.1	1.000		.660		.654	.882	.844
3.2	1.006	.075	.790	13.493			
3.3	1.111	.080	.825	13.958			
3.4	1.060	.078	.792	13.524			
4.1	1.000		.721		.665	.856	.688
4.2	.979	.066	.817	14.760			
4.3	.984	.070	.774	14.124			
5.1	1.000		.659		.524	.765	.700
5.2	1.023	.096	.641	10.630			
5.3	.925	.081	.708	11.493			
$\chi^2 = 497.930(df = 179, p < .001), Q = 2.782, CFI = .933, TLI = .921, RMSEA = .067$							
							.942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χ^2 값을 확인하였고, χ^2 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크기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 지수인 CFI와 TLISM, 그리고 RMSEA 값도 함께 검증하였다. CFI와 TLISMS는 .90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Kline, 2010). 이와 반대로 RMSEA는 값이 적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08 사이면 적절한 적합도를 의미한다(Brown & Cudeck, 1993).

연구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Table 6),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497.930(df = 179, p < .001)$, CFI .933, TLISMS .921, RMSEA .06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Q 통계량은 2.782로 4.0 미만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7). 확인된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의 5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된 경로모형은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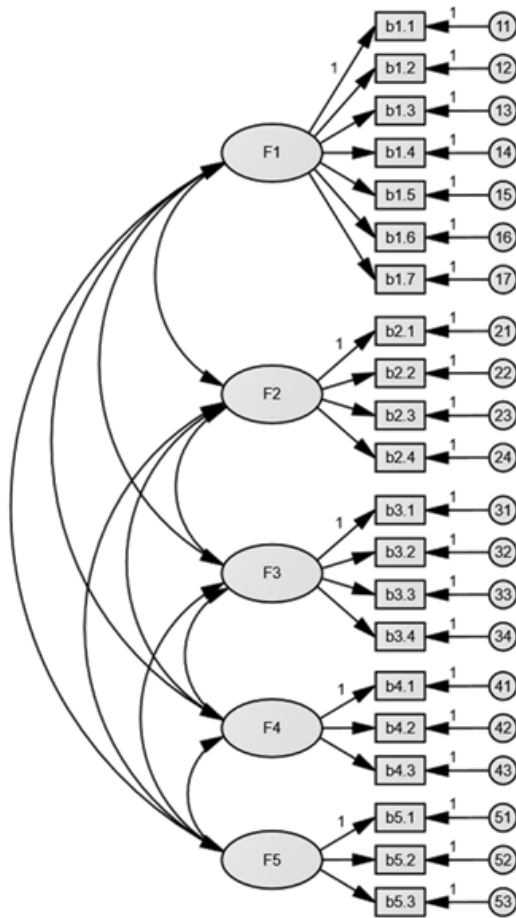


Figure 1. Measurement Model

타당도 분석

준거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와 심리적 소진 척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준거관련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담자 발달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분석 결과, .533~.784로 모든 상관 값이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하여($r = .778, p < .001$) 예술치료사 발달평가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Table 7과 같이 예술치료사 발달평가는 심리적 소진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r = -.073, p > .05$) 예술치료사 발달평가 척도는 심리적 소진과는 변별되는 개념임이 확인되었다.

Table 7

Criterion-Related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Correlations of the CAT-DAS with Convergent and Divergent Constructs

	Total	Intervention Techniques	Counter- transference management	Therapeutic relationship	Ethical strategies	Collaboration	Developmental level	Burnout
Developmental level	.778***	.784***	.546***	.693***	.569***	.533***	1.0	
Burnout	-.073	.001	-.035	-.097	-.090	-.167**	.035	1.0

Note. $N = 399$

** $p < .01$, *** $p < .001$

종합논의

본 연구는 예술치료사의 발달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를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치료중재기술’, ‘역전이 관리’, ‘치료관계’, ‘윤리적 대처’, ‘협업’의 5요인,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the Creative Arts Therapist Developmental Assessment Scales: CAT-DAS)가 개발되었다. 이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척도의 하위요인과 각 하위요인에 속한 문항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그리고 의의와 제한에 대해 이 연구의 서론에서 제시되었던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논하고자 한다.

먼저,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 중 ‘치료중재기술’은 진단과 평

가, 사례개념화, 명료화, 예술치료기법의 활용, 통찰, 문제해결 등과 같은 중재기술과 관련된 전문성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나는 내담자의 언어적/예술적 표현에서 모호한 부분을 명료화한다’, ‘나는 적절한 시기에 중재한다’, ‘나는 치료 상황에서의 문제를 적절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한다’, ‘나는 내담자의 필요와 핵심문제를 파악한다’, ‘나는 중요한 예술치료기법들을 적절히 사용한다’, ‘나는 내담자의 예술적 표현에서 중요한 이슈를 알아차린다’, ‘나는 내담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인식한다’ 등의 7가지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두 번째 하위요인인 ‘역전이 관리’는 ‘나는 내 성격을 형성시킨 배경요인들을 이해하고 있다’, ‘나는 나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시킨 배경요인을 이해하고 있다’, ‘나는 내담자로 인한 나의 감정을 자각한다’, ‘나는 나 자신의 감정을 깊이 있게 숙고한다’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예술치료사의 반추능력 및 자기통찰력과 관련된 전문성을 측정하는 요인이다.

‘치료관계’로 명명된 하위요인은 치료관계 형성능력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나는 내담자에게 진실하고 솔직하다’, ‘나는 내담자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공감한다’, ‘나와 내담자의 관계는 상호적이다’, ‘나와 내담자와의 소통이 자연스럽다’와 같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윤리적 대처’는 ‘나는 전문가로서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나는 직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알아차리고 이에 적절히 대응한다’, ‘나는 내 전문성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인지한다’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이는 예술치료사의 윤리적 태도와 대처능력을 측정하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협업’은 필요할 경우 슈퍼바이저, 동료, 또는 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 태도에 관한 것으로, ‘나는 치료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슈퍼바이저나 동료에게 자문을 구한다’, ‘나는 필요하다면 타전문가와 협업한다’, ‘나는 동료들이나 슈퍼바이저의 조언을 경청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는 ‘연구문제 1.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는 예술치료사의 고유한 전문성의 감정적 요소들을 포괄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으로부터 추출된 5개 요인, 21문항이 전체 문항 분산의 69.6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하위요인들은 3~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인의 적재값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CFI, TLISMS, RMSEA, Q 통계량 등도 이 연구의 모형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가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문제 2.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척도의 타당도가 높다는 것은 척도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맥락에서 척도의 타당도는 무엇보다도 내용타당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술치료사의 전문성과 발달뿐만 아니라 예술치료사와 가장 유사한 내용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담자의 전문성에 관한 선행연구 및 문헌들도 충분히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상담자 전문성 관련 척도들과 이를 구성하는 문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는데, 그중에서 Shim과 Lee(1998)가 개발한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KCLQ)와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 질문지(CFI)가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 개발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상담자가 아닌 예술치료사를 대상으로 발달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이므로, 내용타당도를 확보하는 전 과정에서 기존 척도들에 대한 제고를 넘어 상담자와 명확히 구별되는 예술치료사의 고유한 전문성을 구성하는 개념들도 제고되었으며, 예술치료사의 전문성 발달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수립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86문항의 1차 예비척도를 제작한 후, 박사학위를 소지한 예술치료 전공 교수 5인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쳐 66문항의 2차 예비척도를 제작하였으며 내용 타당도 지수(CVI)는 .985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본다. 덧붙여, 이 척도의 준거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와는 양의 상관관계($r = .778, p < .001$)가 나타났으며 심리적 소진척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r = -.073, p > .05$), 이 척도의 준거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역시 확보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의 타당도는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사료된다.

이어서 ‘연구문제 3.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자면,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3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741~.906으로 충분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요인별 왜도와 첨도 역시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의 신뢰도 또한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는 예술치료사의 고유한 전문성의 잠재적 요소들을 포괄하는 안정적인 구조와 더불어 충분히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측정도구로, 예술치료사의 발달을 목표로 하는 예술치료사 교육과 슈퍼비전의 효과를 측정하는 신뢰로운 도구로 활용되기에 충분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가 가지는 의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척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예술치료사의 고유한 전문성 발달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처음으로 개발된 도구라는 가치를 가진다. 이제까지 예술치료사의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척도들은 모두 상담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들로, 예술성을 포함하는 예술치료사의 고유한 전문성을 측정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국외에서 외국어로 개발된 척도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내 예술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개발되고 타당화된 도구이므로, 국내 예술치료사들의 전문성 발달 수준을 측정하기에 최적화된 척도라 할 수 있다. 둘째, 이 척도는 ‘치료중재기술’, ‘역전이 관리’, ‘치료관계’, ‘윤리적 대처’, ‘협업’이라는 5개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이 척도가 측정하는 치료사의 전문성이 단지 치료중재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적절한 치료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 치료사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찰하고 반추하는 능력, 윤리적 문제에 대한 판단능력, 그리고 슈퍼바이저 및 동료와의 협업능력 등과 같은 보다 다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척도의 특성은 상담자의 발달이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 관계적 측면, 그리고 자기성찰적 측면으로 구성된다는 Ward와 House(1998)의 이론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요컨대, 이 척도는 예술치료사의 전문성 발달과 확립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예술치료 관련 교육과정과 슈퍼비전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예술치료사 전문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현장에서도 중요한 측정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제한점에 대해 논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한 후속 연구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무용동작치료사 등을 포괄하는 예술치료사의 전문성 발달을 측정하는 도구로, 각 예술치료 분야의 고유한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각 예술치료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아직까지는 척도개발 연구를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지 못하다는 현실에 기인한다. 향후 각 예술치료 분야의 전문가 집단 크기가 충분해진다면,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무용동작치료사 등과 같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연구기간으로 인해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이 척도의 검사-재검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 척도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최근 예술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예술치료사의 전문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예술치료사들의 고유한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발달평가척도는 예술치료사의 전문성 확립과 발달을 목표로 하는 교육현장과 예술치료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현장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1) 예술치료사는 음악, 미술, 동작무용과 같이 특정 예술 매체를 치료의 주 동인으로 사용하는 치료사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동작무용치료사를 포함한다.

References

- Baek, H. M., & Yoo, H. S. (2012). 상담경력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과 소진의 관계: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s between counselor development level and burnout according to counseling experience: the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6), 3191-3205. doi:10.15703/kjc.13.6.201212.3191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S. Long (Ed.).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Sage, Newbury Park, California. doi:10.1177/0049124192021002005
- Chang, S. M. (1999). **상담자의 특성, 역전이 관리능력 및 상태불안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counselor's characteristics,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and state anxiety]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H. Y, (2002). **상담자의 완벽주의 성향,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 [Perfectionism tendency, social support, and burnout among counselor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Bucheon, Korea.
- Go, Y. H., & Park, S. H. (2014).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 자기성찰 경험을 중심으로 [Phenomenological study on counselor's professional development with a focus on self-reflec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6(4), 805-839.
- Jeon, S. K. (2016). 상담심리전문가들이 경험을 통해 지각한 숙련상담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aster counselor perceived by the experiences of professional counselors]. *Journal of Family and Counseling*, 6(1), 23-41.
- Jo, S. Y., & Kwon, K. I. (2011). 초기상담에서 상담자 경력별 공감 정확도와 상담만족도: 임상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내담자 지각을 중심으로. [Differences in empathic accuracy and across counselor's experience levels in counseling satisfaction early counseling phas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2), 257-275.
- Jung, H. S., & Kim, J. H. (2011). 상담자 애착회피와 작업동맹 간의 관계에서 상담자 발달수준의 조절효과. [The moderating effects of counselor development levels o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counselor attachment avoidance and working alliance].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4(2), 81-94.

- Kang, C. Y. (2008). 미술치료 실행가의 발달수준 및 대인관계 성향과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among developmental levels,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ies of the art therapy practitioner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3), 905-923. doi:10.15703/kjc.9.3.200809.905
- Kim, D. M. (2009). 집단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수치심과 평가불안. [Shame and evaluation anxiety in music therapy group supervision]. *The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11(1), 60-85. doi:10.21330/kjmt.2009.11.1.60
- Kim, D. M. (2015). 슈퍼비전 관계가 예술치료 슈퍼바이저의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자기신념의 매개와 슈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 [The effect of supervisory relationship on development of creative arts therapists: The mediated effect of self-beliefs and the moderated effect of supervisory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17(2), 37-56. doi:10.21330/kjmt.2015.17.2.37
- Kim, J. H., & Ahn, H. N. (2013). 상담자발달수준, 마음챙김 및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among counselors' level of development, mindfulness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4(2), 95-109.
- Kim, J. S. (2005). 상담자교육에서 성찰적 실천의 의미와 적용 [The significance and application of reflective practice in counselor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4), 813-831.
- Kim, K. H. (1992). 상담교육방법으로서의 개인 슈퍼비전 모델에 관한 복수사례연구 [Multiple case studies of counseling supervi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4(1), 19-53.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Publishers.
- Lee, I. H. (2014). *Easy flow regression analysis*. Seoul, Hannarae Publisher.
- Lee, K. S. (2015). 음악치료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피드백 수용도, 슈퍼바이저 스타일, 슈퍼바이저 발달수준, 슈퍼비전 작업동맹 간의 구조분석 [A structural analysis on feedback acceptance, supervisory style, supervisees' developmental level, and working alliance perceived by supervisees' of music therapy].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17(1), 23-43. doi:10.21330/kjmt.2015.17.1.23

- Lim, K. W., & Kim, J. H. (2008). 상담자발달수준 및 역전이 활용과 상담성과 [The effects of counselor development level and countertransference utilization ability on counseling outcom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3), 987-1006. doi:10.15703/kjc.9.3.200809.987
- Loganbill, C., Hardy, E., & Delworth, U. (1982).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1), 3-42. doi:10.1177/0011000082101002
- Maslach, C., & Jackson, S. E. (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2(2), 99-113. doi:10.1002/job.4030020205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2nd ed.). New York, McGraw Hill
- Shim, H. S., & Lee, Y. H. (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Assessment of the developmental levels of Korean counselo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0(1), 1-28.
- Shin, K. S., & Kim, K. W. (2001). 놀이치료자의 경력, 훈련경험 및 자의식과 역전이 관리 능력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ability of the play therapist, and their careers, their training experiences, their self- consciousness and their countertransference].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4(1), 57-69.
- Sohn, E. J., Yoo, S. K., & Shim, H. W. (2003). 상담자의 자기성찰(reflection)과 전문성 발달 [Counselor's reflection and the development of expertis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4(3), 367-380.
- Stoltenberg, C. D., Delworth, U. (1987). *Supervising counselor and therapist: A developmental approa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
- Van Wagoner, S. L., Gelso, C. J., Hayes, J. A., & Diemer, R. A. (199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reputedly excellent therapist. *Psychology*, 28, 411-421. doi:10.1037/0033-3204.28.3.411
- Ward, C. C., & House, R. M. (1998). Counseling supervision: A reflective model.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8(1), 23-34. doi:10.1002/j.1556-6978.1998.tb00554.x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reative Arts Therapist Developmental Assessment Scales (CAT-DAS)

Kim, Dong Min

Kim, Youngshin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that measures creative arts therapists' professional development. As the result, the Creative Arts Therapist Developmental Assessment Scales (CAT-DAS) were developed to assess creative arts therapists' developmental levels. In Study 1,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N=240) identified 5 factors: Intervention Techniques,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Therapeutic Relationship, Ethical Strategies, and Collaboration, with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estimates ranging from .741 to .906. In Study 2,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399) provided a cross-validation of the 5-factor model as well as an evidence for validity of the scal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the scales are highly credible to assess creative arts therapists' developmental levels, and therefore can be used as effective tools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training programs in the field of creative arts therapy.

Keywords: creative arts therapist, development, creative arts therapist developmental
assessment scales, validation

* ysk@sookmyung.ac.kr

1차원고 접수일: 2019년 02월 18일

수정원고 접수일: 2019년 03월 21일

게재확정일: 2019년 04월 15일